

신 앙

파트 3

- 함께 기뻐하며 살자 -

교오또교구 주교 바오로 오오즈카 요시나오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필립비 4.4). “신앙의 기쁨”은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보물이며, 그리스도인의 특징의 하나입니다. 1987년 교토에서 개최한 제 1회 복음선교추진전국회의(나이스 1)의 성과에 있어 주교단은 “함께 기뻐하며 살자”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신앙을 규칙이나 교의를 중심으로 한 방향에서 “사는 것, 게다가 함께 기뻐하며 사는 것”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 의미는 신앙생활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앞에서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해” (2012년 10월 11일 - 2013년 11월 24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걷는 우리 교오또교구는 신앙 파트 3에 있어 “신앙의 기쁨”을 테마로 하겠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의 부르심에 응하는 “참된 신앙”에 있어서 “참된 신자”로 되기 위한 “신앙의 기쁨”을 “신앙의 감각”에 비취서 확인해 봅시다.

1. 하느님께 사랑받는 기쁨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자신의 영원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일상생활의 작은 기쁨도, 인생의 큰 기쁨도 참 기쁨은 전부 하느님으로부터 사랑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이신 하느님이야말로 참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고 또 믿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있으며 하느님께서 그 안에 계십니다” (요한 1서 4.16). 신앙인들이 바라는 기쁨은 하느님으로부터 사랑 받고 있다는 자각에서 생겨납니다. 그 결과 “신앙의 기쁨”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넘쳐 있습니다” (1 베드로 1.8). 이처럼 우리들은 하느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주신다는 것을 신앙에 의해서 받아 들여 “신앙의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인격적 감각]

## 2.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기쁨

하나님의 그지 없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완전한 방법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신앙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찾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오로는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거듭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기쁨의 이유를 말합니다 (필립 4.5). “신앙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것을 신앙에 의해서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늘 나라는 밭에 묻혀 있는 보물에 비길 수 있다. 그 보물을 찾아 낸 사람은 그것을 다시 묻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 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마태 13.44). 날마다 일어나는 것 중에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발견의 기쁨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이제 손을 놓을 수 없게 됩니다.

[신앙의 발견적 감각]

## 3.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

“나를 믿는 사람은 나뿐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까지 믿는 것이다” (요한 12.44).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므로 (요한 10.30 참조)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자녀로서의 기쁨이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가지고 있는 완전한 기쁨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을 같이 나누어 너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 15.11). 그리하여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신앙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장이며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그 자캐오를 방문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신” 자캐오처럼 (루가 19.5-6) 우리들도 매일 죄인인 우리들을 용서하며 벗으로서 사랑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신앙의 기쁨”이 되며, 그 기쁨은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근본으로부터 새롭게 만들어, 구원을 가져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인식적 감각]

## 4.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기쁨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작은 사람에 드러내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 기쁨에 넘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지혜롭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었습니다”](루가 10.21). 더욱이, 예수님께서서는 그 기쁨을 “어린이”로 전달하는 것을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 그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셨습니다 (요한 15.9-15 참조). “신앙의 기쁨”은 예수님의 수난과 십자가의 봉헌에 있어서 우리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오로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목숨을 받쳐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바울로는 그것을 “그리스도를 자랑하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자랑하는 자여, 주님을 두고 자랑하여라” (1 고린 1.30). 또한 바울로는 구약성경의 예레미아서 9 장 23 절을 인용하여, “주님을 두고 기뻐하라”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신앙의 그리스도론적 감각]

## 5. 심금을 울리는 기쁨

전례는 “신앙의 기쁨”을 맛보는 특별한 장입니다. 7 개의 신비 [세례, 견진, 성체, 고해, 혼인, 서품, 병자성사]에 있어 우리들은 하느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며, “신앙의 기쁨”에 쌓여집니다. 그래서 [전례를 단순한 의무에 대상, 준수해야 할 의식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하느님과의 만남, “함께 사는 기쁨”을 체험하고 나눔의 장으로 하여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듯한 전례를 만들어 내는 노력이 요구 됩니다] (나이스 1 로 부터). 고해성사는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는 성사입니다. “회개하는 한 명의 죄인에 있어서는 기쁨이 하늘에 있습니다” (루가 15.7 참조). 탕자의 비유처럼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 왔으니 잃었던 사람을 되찾은 셈이다. 그러니 이 기쁜 날을 어떻게 즐기지 않겠느냐?” (루가 15.32) 우리들의 하느님께서서는 죄인이 당신께 되돌아 올 때, 자신의 사랑의 기쁨을 아까워하지 않으시며 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의 성사적 감각]

## 6. 주는 사랑을 사는 기쁨

“형제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완전한 사람이 되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생각을 하나로 하십시오. 평화를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이신 하느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2 코린 13.11).

“기뻐하라”고 말한 명령은 “서로 사랑하여라”고 한 명령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신앙의 기쁨”은 하느님께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으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으로, 사랑은 희생을 동반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기쁨을 버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기쁨을 주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 들이셨습니다. “신앙의 창조주 또는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장차 누릴 기쁨을 생각하며, 부끄러움도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어 내시고 지금은 하느님의 옥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 12.2) 우리들도 매일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실천할 때 “신앙의 기쁨”이 우리들의 안에서 확실한 것으로 됩니다.

[신앙의 실천적 감각]

## 7. 구원의 기쁨

“신앙의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부활 날 아침, 예수님을 거둔 무덤에 온 여자들은 “두려워 하면서도 크게 기뻐” 하였습니다 (마태 28.8). “예수님께서도 지금도 살아계신다”라고 말하는 메세지는 구원의 하느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이 되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후에 승리를 거두는 것은 악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체험은 신앙인들을 구원의 기쁨으로 인도하며, 살아갈 용기와 인내를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바울로는 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필립 3.10-11).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의 많은 시련, 특히 비참하고 불가해한 일들 속에서 “신앙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으로 괴로움이나 슬픔을 강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쁨”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구원받고 있다는 진실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구체적 감각]

## 8.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

인생에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영원의 생명을 추구하는 근본결단을 하고 있기에, 불안을 신경쓰기 보다는 신앙에 의해 불안을 바르게 평가합니다. 불안을 떨쳐 버리기 보다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은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확신과 함께, 지금도 여전히 하느님께서 세상 안에서 일하시며, 악의 힘에 이겨내시며 이 세상을 궁극의 완성에 이끄신다는 것을 신앙에서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울며 슬퍼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에 잠길지라도 그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요한 16.20). 그러므로 우리들은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환난 속에서 참으며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로마 12.12 참조). 바오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들의 각각의 고통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으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 1.24). 베드로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때에 기뻐서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1 베드로 4.13).

[신앙의 총합적 감각]

## 9. 예수님을 믿는 기쁨

현대는 인간을 “신앙의 기쁨” 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다양한 유혹에 차 있다. 예를들어, 인터넷 회사에는 우리들을 소비주의적인 사고 방식에 끌어들여, 즉물적인 만족과 쾌락을 요구하는 것처럼 피어, 마치 행복을 손에 넣은 듯한 착각을 줄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현대인은 물질적인 부를 풍족하게 소유하면서도 어딘가 생활의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 소유하는 것은 참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선교사로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바오로는 말합니다. “슬픔을 당해도 늘 기뻐하고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고린 6.10). 가나의 혼인에서 포도주가 부족한 것을 성모님께서만 아셨습니다(요한 2.3).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신앙의 기쁨” 에 넘친 분이기엔 생활 속에 하느님으로부터의 “기쁨” 이 부족한 것에 민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기쁨을 준다는 믿음 안에서 행동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세상에서도 일시적으로 사람을 속이는 쾌락에 현혹되지 않는 참되고 영속적인 기쁨을 선택할 방법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신앙의 비판적 감각]

## 10. 친교에서 깊어지는 기쁨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같이 나누고 순순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2.46). “신앙의 기쁨” 은 동시에 형제자매의 친교를 생활화 하는 것에 있어 깊어질 수 있습니다. 바오로는 개인개인에 대해서가 아닌 “(여러분은)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필립 4.4)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오로는 언제나 공동체와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필립 2.17-18).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데 나만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바오로는 말합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며,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십시오” (로마 12.15).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모든 지체도 함께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 지체가 영광스럽게 되면 다른 모든 지체도 함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1 고린 13.26).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다가갈 때,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기쁨을 자신 안에 간직하고 싶다면, 이웃들과의 친교 안에서 기쁨을 전하고, 나누지 않으면 안됩니다(1 요한 1.3-4 참조).

[신앙의 공동체적 감각]

## 11. 성령의 열매인 기쁨

“하느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의 기쁨입니다” (로마 14.17). 예수님께서 가져오는 하느님의 나라는 음식이라는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의 활동에 의해 하느님과 사람들과의 올바른 교제 속에서 쌓은 정의와 평화 안에 있어, 그 곳에서 내적인 기쁨을 부여합니다. “성령께서 맺어 주시는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갈라 5.22-23). 성령께서는 아버지이신 하느님과 아들이신 예수님의 사랑의 줄이시며,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므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해 느낄 수 있게 해 주십니다(마태 8.15 참조).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사에 의해 선택되지만, 성령의 활동 없이 인간의 힘에 의해서 생겨난 결단이 아닙니다. 신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여는 성령에 의한 것이며, 이 것이야말로 하느님의 사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무쪼록 희망을 주시는 하느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온갖 즐거움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가득히 안겨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희망이 여러분에게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15.13).

[신앙의 성령론적 감각]

### 1 2. 마리아의 노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구세주이신 하느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마음이 설레입니다.”(루가 1.46-47) 마리아는 주님을 자신 안에 받아들여, 찬미의 노래로 구원의 기쁨을 알렸습니다. 그것이 “마리의 노래”입니다. 마리아는 겸손하며 완전한 봉사 안에서 자신의 생애를 하느님께 바치는 것을 통해 하느님 사랑의 기쁨의 첫 번째의 선교사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의 사명은 신앙이 거짓없는 완전으로 영속적인 행복과 기쁨을 가져오는 것을 세상에 보이는 것 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해”가 목표로 하는 부분입니다. 현대사회의 곤란한 상황속에서 우리들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교의 기쁨과 희망의 메시지를 알고자 마음으로부터 희망하고 있습니다. “신앙년”에 있어 우리들도 “신앙의 기쁨”의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먼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기쁨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필립비 4.4)

2013년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의 대축일